

보도 일시	2022.6.9.(목) 11:00 (당일 석간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6. 8.(수) 오후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전준철 (044-200-5250)
		담당자	서기관 최영인 (044-200-5251)

‘스포츠 · 체험 · 축제’ … 해양관광 더 다채롭게

- 1년 내내 즐기는 해수욕장 만들고, 해양 레저행사도 정상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에 따라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와 축제들이 비대면 행사로 축소되거나 행사 자체가 취소되어 국민들의 해양레저 활동 기회가 제한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 재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히 야외·청정 관광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들에 대해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 편히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먼저,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분산시키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철 성수기 동안 주요 해수욕장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밀집도가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한다. 또한 여름철 해수욕 위주로 이용되던 해수욕장을 연중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레저형, 문화형 등의 '테마형 해수욕장'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겨울철에도 해수욕장 백사장을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겨울바다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다채로운 레저 행사

그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축소 개최되거나, 행사 자체가 취소된 대회와 축제들을 정상화한다. 해양레저산업과 해양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와 해양레저관광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운동선수나 일반인들이 해양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능동적으로 레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빠르게 대중화되는 서핑활동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배 서핑대회를 양양에서 새롭게 개최한다. 8,9월 270여명의 서핑선수 및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예선이 개최되며, 10월에는 양양 죽도해변에서 결승전이 열리고 남녀 우승자에게는 각각 3백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도 주어질 예정이다.

◆ 크루즈 운항 정상화 여건 조성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6월부터 허용된 관광목적 크루즈선의 무하선 입항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를 추진한다. 또한 해외 선사 유치에 위한 포트세일즈를 실시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여 국내외 크루즈 수요를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2년 만에 재개된 이번 연안크루즈 체험단은 2만 원의 경비만으로 2박3일 크루즈 프로그램을 부산 지역에서 체험하게 된다.

◆ 마리나 산업 활성화

섬 관광이나 스쿠버다이빙과 연계한 호핑투어* 등 마리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마리나에서 즐길 거리를 만든다.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마리나 선박 정비업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비사 자격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레저 선박 제작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Hopping Tour : "깡충깡충 뛰다"라는 의미로 섬과 섬 간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바다와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여행 형태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바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채롭게 해양레저스포츠와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며, “많은 분들이 바다를 방문하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 해양관광 여건

□ 국내외 관광 재개 움직임 속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외 관광시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백신접종 이후 일상 회복의 주된 수단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 증가

* 세계관광객(만명): ('19) 145,900 → ('20) 40,000 / 방한객(만명): ('19) 1,750 → ('20) 252

-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의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관광 재개에 따라 해외 관광 수요도 증가 추세

* 국내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2%가 국내여행 의향이 있으며, 절반 이상이 '21년 대비 여행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관광공사)

**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 시 격리면제 시행('22.3)

□ 관광행태는 대규모 · 실내 → 소규모 · 개별 · 야외 중심으로 전환

- 코로나19 지속으로 자연친화적 레저활동이나 야외·청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관광트렌드 및 레저수요 변화

- 캠핑·차박 등 타인과 접촉하지 않는 숙박행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으며, 개인 취향을 반영한 여행의 다변화 및 일상화* 경향이 대두

* 소규모의 주중여행, 당일치기 여행, 즉흥여행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목적지로는 바닷가 선호(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2022년 관광 트렌드 분석)

➔ 일상회복에 따라 바다가 안전한 레저활동 공간과 국민 휴식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여름을 준비하겠습니다.

① 편히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

- (방역관리) 해수욕장 혼잡정보* 제공 및 한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밀집 환경 차단 및 이용객 분산 지속 추진

* 여름철 성수기(7~8월) 동안 이용객이 많은 주요 50개 해수욕장의 혼잡도 제공

** 한적한 해수욕장 50개 선정 및 홍보(6월)

- (안전점검)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6~7월 초)하고 해수욕장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구역 설정·게시 및 안전시설 설치·점검

* 해수욕장 연중 이용에 따른 개장기간 및 비개장기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마련

- (테마해수욕장) 여름철 해수욕 위주의 단순 관광을 벗어나 연중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

* 우수 해수욕장(3개소)을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해수욕장의 시설개선 지원(평가를 통해 3개소 선정, 각 1억원 지원)

레저형	힐링형	자연생태형	향토체험형	문화형
해양레포츠, 액티비티 등 활동형 해수욕장	자연감상, 건강증진 등 휴양형 해수욕장	생태교육, 생물관찰 등 자연 체험형 해수욕장	지역음식, 축제 등 지역 체험형 해수욕장	예술행사, 역사탐방 등 문화 향유형 해수욕장

② 다채로운 레저 행사

- (행사) 해양레저산업과 해양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 및 해양레저관광을 주제로 한 축제를 개최하여 국민 볼거리 제공

*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7~8월, 부산·포항), 부산항 축제(7월, 부산), 제주 국제 해양레저 박람회(9월, 제주도), 해안선 레저 페스티벌(9월, 정선)

- (대회) 운동선수 및 일반인들이 해양스포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능동적으로 해양레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마련

- 최신 트렌드 및 수요를 반영하여 서핑대회 신규 개최(6~10월, 양양)

* **6월** : 제트서프 챔피언십(서울), 전국 카누·드래곤보트 대회(증평), / **7월** :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새만금컵 요트대회, SUP(스탠드업패들보드)대회(창원), / **8월** : 해양소년단 리갯타대회(여수), 전국해양스포츠제전(군산), / **10월** : 아라뱃길 드래곤 보트 대회, 전국카약대회(통영), / **11월** : 코리아세일링챔피언십

③ 크루즈 운항 정상화 여건 조성

- (운항 정상화) 관광목적 크루즈선의 무하선 입항 허용(6월) 등 동북아 지역 크루즈선 운항 재개를 위한 단계적 운항 정상화 추진
 - * 국내항을 모항으로 하는 내국인 대상 크루즈선 운항 허용에 대해 검토,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기항지 관광 허용 여부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속 협의
- (해외 마케팅) 해외 선사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실시(우리부-유럽 선사 간 미팅, 6월), 및 ACC*(아시아크루즈협의회) 정기회의의 국내 개최 추진
 - * 아시아 국가의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 11월 개최 예정(잠정)
- (국내수요 확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하고, 국제크루즈포럼(8월, 제주도)을 개최하여 수요 확보
 - * 체험단 모집(5.30~6.10) → 체험단 선정 및 안내(~6월 중) → 체험단 운영(7월 중/5항차)

④ 마리나 산업 활성화

- (관광 콘텐츠) 섬 관광이나 스쿠버다이빙과 연계한 호핑투어 등 마리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마리나의 즐길 거리 확대
 - * 규제요인 발굴→지자체·관계기관 의견수렴→아이디어 공모·전문가 토론(~'22)→ 법·제도 개선안 도출 및 사업자 지원방안 마련('23~)

현행(AS-IS)	개선안(TO-BE)
❖ 무기항·단기 투어*, 요트스테이 위주 * 여객선·유도선 등 유사 법·제도와의 중첩·민원 우려로 섬 기항 등 사업자 주관, 민간 차원의 상품발굴 제한	❖ 요트를 활용한 스쿠버다이빙 등 다양한 체험, 섬 관광, 바다역 기항 병행 * 관련 사업체·어업인 등과 협력소통 추진 + 상품 아이디어 공모 및 지자체 협업 도모

- (정비업)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제도 확립 및 정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육·이수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 안전·보건관리, 정비기술 등 과목별 교육·이수과정 개설('22.11)
- (제조업) 친환경 선박(전기추진 등) 등장을 계기로 세계 신규시장 진입을 위해 보급형 요트의 제조품질 개선 등 기술개발 추진
 - *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22~'27, 440억원) / 중소조선연구원

◆ **선진국형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관광 콘텐츠로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블루투어리즘*의 국가대표 산업화 추진**

*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여가활동의 총칭

< **선진국형 인프라 구축 준비** >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레저·생태·치유·문화예술 등이 융·복합된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자생력을 확보한 도시
 - * 대형 마리나+크루즈 접안시설+숙박시설+거주지역+대형 쇼핑몰+기타 레저·관광시설
- (거점형 마리나) 레저선박 계류시설, 선박 보관·수리시설, 클럽 하우스 등 체험형 해양레저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시설
 - * 레저선박 계류시설(육/해상)+보관시설+편의시설+클럽하우스+임시숙박시설
- (바다역) 해양레저관광 거점 방문객의 불거리·놀거리 제공과 섬 지역 관광지 확보를 위해 인근 섬에 조성된 소규모 계류장

< **레저산업의 기초체력 증진** >

- 레저선박의 제조 - 수리 - 판매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해양레저산업을 집단화하고 기술 파급효과를 증대
 - 마리나비즈센터와 연계하여 레저선박 제작 클러스터 구축

< **사계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의 다양성 확보** >

- (낚시) 낚시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낚시 복합 타운(3개소) 및 체험형 낚시교육을 실시하는 낚시학교 조성
- (생태관광) 해양정원, 해양생태과학관 등 권역별 관광 시설을 조성하고, 갯벌유산통합센터 등 갯벌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참고 2

해양레저관광 행사 일정(안)

구분	행사명	일정, 장소	주요내용
경기	제16회 전국 카누·드래곤보트 대회	6.18-6.19 증평	카누 4인승 200m, 드래곤보트 10인승 200m, 500m 대회
축제	제15회 부산항 축제	7.2-3 부산항 일원	부산항 불꽃드론쇼, 부산항 투어, 선박 공개행사, 바다사랑한마음걷기대회 등
경기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7.20-24 충남 보령	- 아시아요트연맹 킬보트컵 개최 (ASAF Keelboat Cup) - 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하여 해양레저 스포츠 등 체험행사 동시 진행
경기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7.13-17 전북 부안	ORC, OPEN, J24의 3종목 별 요트대회
경기	SUP대회	7.2-3 경남 창원	SUP 정식경기 및 번외경기
경기	제33회 해양소년단 리갯타대회	8.3-8.6 전남 여수	조정, 보트, 요트 경주 등 수상 기능 경기 대회, 기능장 취득과정(2종), 수상레포츠 체험활동 등
제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8.12-15 전북 군산	4개 정식종목 및 4개 번외종목 경기 개최 - 정식종목 : 요트, 카누, 핀수영, 철인3종 - 번외종목 :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바다수영, 비치발리볼, 조정 - 체험프로그램 : 레저체험, 공예체험 등
축제	제10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8.19-8.28 부산 7-8월 경 경북 포항	해양레저 분야 국제 컨퍼런스, 해양레저 체험, 샌드 페스티벌, 키마비치 등
축제	해안선레저페스티벌	8.27-28 강원 정선	카약, 래프팅, 수상오토바이, 생존수영 등 레저스포츠 체험
박람회	2022 제주국제 해양레저박람회	9월 중 제주도 일원	해양레저 업·단체 전시전, 공모전 및 체험활동
경기	아라뱃길 드래곤보트 대회	10월 중 경인 아라뱃길	드래곤보트 8인승 200m 경기, 체험존 운영(KIT 체험 프로그램, 뱃길 강통열차 등)
경기	서핑대회	10월 중 강원 양양	서핑대회 개최
경기	제10회 전국카약대회	10월 중 경남 통영	싱인카약 및 싱온카약 대회, 카약 체험
경기	코리아세일링챔피언십	11월 미정	킬보트 종류별(J/70, J/24, ALT-7000) 대회

* 행사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